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내서

챕터 개요

0. 서론
1.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2. 삶의 의미와 목적
3.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 감사, 은혜, 그리고 겸손
5. 하나님은 누구신가?
6. 예수는 누구인가?
7. 성령님은 누구신가?
8. 사탄은 누구인가?
9. 하나님과 분리됨
10. 왜 죄를 짓는가?
11.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가?
12.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13. 기록하라!
14.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15.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16.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17. 사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8.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모든 음성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19. 어쨌든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건가요?
20.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요?
21.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22. 하나님의 축복의 빛 속에서의 삶!
23. 결론

0. 소개:

1984년 3월 어느 일요일 오후,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당시 열일곱 살이었던 저는 눈사태가 일어난 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스키

여행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섬뜩한 침묵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탐침봉으로 눈 속 깊은 곳 어딘가에 묻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눈사태는 좁은 V자 모양의 계곡을 거의 완전히 메워 놓았습니다. 형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계곡 아래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날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저는 구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절망감이

저를 덮칠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피터는 살아 있어!”

그렇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제게 확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사태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피터를 살려서 구조해낼 수만 있다면...”

오후 7시 15분, 마침내 첫 번째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0분, 우리는 눈사태 탐지기를 이용해 피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찾았다!”라고 외치던 모습이요 .

마치 막대기를 집어 올리듯, 가늘고 붉은색의 눈사태 구조용 탐침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마치 오페라 '미카도'의 한 장면처럼 한데 모였다. 모두들 눈사태 구조용 삽을 집어 들고 눈 속에 4미터 깊이 파묻힌 피터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깔때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맨 아래쪽, 등불에 비친 곳에서 베드로의 머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웃고 있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베드로는 눈사태에 3시간 30분 동안 묻혀 있었는데, 동상도 저체온증도 없었다!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눈사태는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저는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쁨도 많았고, 어려움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힘든 교훈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집불통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를 한없이 사랑하셨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모든 깨달음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었거나,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 어렵게 깨달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아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모든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 책과 같은 안내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실수와 우여곡절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더라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과 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책은 딱딱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가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책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성경 구절 :

대부분의 구절은 “모두를 위한 소망 (Hope for All)” 번역본 (Hfa)에서 발췌했습니다.

읽는 동안 많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1.1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저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형제자매들과 자주 다투었고, 결코 모범적인 아이는 아니었죠. 열두 살쯤 되었을 때 ,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해야 해!

예수님께 네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네 마음속에 영접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싶진 않지?”

네, 제 생각에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제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을 제 친구이자, 스승이자,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기독교 청소년 캠프에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

그 후에 천사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제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자 제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이었죠. 언제나 제 친구이자 멘토이셨던 예수님을 느꼈고, 그분의 음성, 아니,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었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난 산등성이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책에 적어 놓은 모든 것은 나에게도 조금씩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으며, 세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이 안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2 이 책을 쓴 대상:

안녕하세요? – 당신의 삶은 지금까지 어땠나요?

사실 좀 비논리적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계획도, 나침반도, 이정표도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아무런 안내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죠.

모든 게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

사실 그건 좋지 않은 점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것도 당연하고 , 쓰라린 실망에 빠져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당신이 이 “신앙 사용 설명서”를 읽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당신이 삶을 재정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나는 인생을 최대한으로 누렸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여행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차도 있어. 그런데도 모든 게 왠지 의미 없고 공허하게 느껴져...”
정말 그럴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삶의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사람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곁에 두고, 보이지 않는 친구이자 코치로서 새로운 삶을 헤쳐나갈 길잡이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로드맵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내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의 죄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 영생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8-9)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그분의 손을 통해 당신의 삶을 인도받도록 초대했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정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군요.

이로써 당신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일종의 "리셋"을 이루었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 당신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면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낙원이 당신을 위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절망도 어둠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십시오. 특히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1.3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

우리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과 꾸준히 함께 살아간다면,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향상된 지각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을 일종의 영적 지각력으로 묘사합니다. 인도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의지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이는 삶에 대한 관점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관점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확립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과 인정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줍니다.

사랑 안에서의 자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책임과 사명: 이 새로운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 그리고 희망의 전달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시야가 순전히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이기심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필멸에서 영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이 속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믿음과 제자도는 어중간한 마음으로 해서 는 안 됩니다.

온전하고 꾸준하게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란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그 핵심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어중간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뢰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헌신은 언제나 온전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로 인해 무너진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고, 당신의 인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자유를 잃게 된다고!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당신을 다시 죄로 이끌어갑니다. .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과 사랑, 그리고 지지를 느낍니다. 아주 천천히, 당신은 이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29-30 (HFA)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너희를
온유하게 대하고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삶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씌운 멍에는 쉽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그분의 관점이 갑자기 당신의
관점이 됩니다. 당신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받는다는 느낌”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삶의 의미와 목적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2.1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1.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2.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3.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2. 1. 1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구와 그 모든 자연 요소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ChatGPT”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순전히 논리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 우리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시며 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감과 인지 능력: 인간은 강한 자신감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성찰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러한 능력이 미발달된 형태에 불과합니다.

언어: 동물들도 서로 소통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미묘한 뉘앙스, 상징은 물론 거짓말과 시적인 표현까지 가능하게 하죠. 동물과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입니다.

미래 계획 및 시간 인식: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며, 이미 일어난 일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열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동물과 구별 짓는 것은 단순히 지능뿐만 아니라 사고 능력입니다.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과를 인식하며,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2.1.2 우리 안의 신성: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것, 즉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영혼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 (창세기 2:7)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들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게 된다.

영혼은 그녀는 불멸합니다. 그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의식, 도덕적 책임, 그리고 우리와 신과의 관계를 관장합니다.

관계 :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남녀 관계는 각자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헌신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중간한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 보십시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베소서 2:8-10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선한 일, 곧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선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2.1.2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 방금 읽으신 구절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가 참 선한 일,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10)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특히 영원한 삶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멸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2.1.4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살아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너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1. 5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의 목표는 바로 **영생이다 .**”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삶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구절 : 마태복음 25장 4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활기찬 삶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동차 열쇠: 예수님께 자동차 열쇠를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하세요. “제 차를 운전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길을 아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을 압니다!

”

흥미진진한 삶 :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벅차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고대한다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직후 잠시 동안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는 사후 세계입니다!

3.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을 이미 읽으셨나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와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 양이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찾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당신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

무한히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까지 돌보신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그분의 생각입니다 .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것도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의 존재 자체는 모두 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외모, 지능, 성격, 매력... 그리고 인생의 성공까지도 말입니다. 신께서 당신의 운명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일을 행하려는 의지와 능력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13)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6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왜 전쟁, 기근, 고통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21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감사, 은혜, 겸손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허영심을 버리세요 : 이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과시하려는 행동을 멈추세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셀카 사진을 세상에 올리는 것도 그만두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물론, 그런 일들을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써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은 **하나님이십니다 !** 영광과 찬양은 오직 그분께만 드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룬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신의 것처럼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돈 : 돈조차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 단지 빌린 것일 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삶을 영위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랑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입의 최소 10%를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였고, 돈을 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좋은 팁 : 한두 아이를 후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동 지원 단체인 www.compassion.com 에서 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당신의 돈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건강 : 건강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음에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 이제 이 문제가 명확해졌으니,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겸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 사랑, 자비 : 감사와 겸손은 온유함, 사랑, 자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만, 이기심, 자기애를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것에도 감사하세요 : 당신을 괴롭히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러한 “가시”를 즉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제거해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속담 :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는지 항상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구절 :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거나 “가시덤불”을 넘어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업어 주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과 신뢰를 심어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 구절 :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십시오 (HFA).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에 따라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과제/팁: 로마서 전체를 읽으세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다른 편지들에서도 귀중한 지식의 보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모든 편지를 다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에 밑줄을 그을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갈라디아서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또한 읽어 보십시오.

빌립보서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진지하게:

모든 편지를 읽으세요 . 몇 번이고 다시 읽으세요! 이 편지들은 신앙의 기초를 이루며,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하고 고통 없이 눈을 뜰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밤새도록 함께하시고 몸을 튼튼하게 해 주셨음

에 감사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오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건강함에 감사하세요. 배우자, 가족, 자녀, 직장 등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 성경에도 감사에 관한 구절이 무수히 많습니다.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일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으십시오. 하나님께 교만과 자기 홍보하려는 성향을 없애주시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6-7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역대기상 16:34

“여러분의 모든 행동, 즉 말과 행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 (골로새서 3:17)

5.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당신과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 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뿐 아니라 영화와 그림을 통해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5.1 삼위일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개별적인 위격이시지만, 하나의 통일체이십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 성자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

이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세 명의 신이 아니라, 세 가지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의 신입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물은 액체 상태, 고체 상태의 얼음, 또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다음 장에서 예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경 구절 :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으십시오. 이 장은 매우 귀중하므로, 가능하다면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연결고리를 드러내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양심, 환상, 생각, 그리고 감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신성한 일치입니다.

5.2 신의 본질:

구약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림이 더욱 완성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9)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30)

그러므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하나님을 빛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구름으로 상상합니다. 임사체험 후 돌아온 사람들은 종종 강렬한 흰빛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눈부시지 않고 온 세상을 감싸는 강렬한 사랑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5.3 하나님의 속성

5.3.1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며, 아무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아시며, 우리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시 해가 뜨게 합니다 . 그리고 새들의 서식 환경이 바뀌어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될 경우, 새들의 부리 모양까지 변화시켜 줍니다. (미세진화)

전지전능하심 :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신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 그분은 재판관 이십니다 .
그분은 정의롭고 거룩 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

규칙 및 법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자연 법칙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피조물들이 따라야 할 규칙과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이 길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일어난다.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직분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 우리는 모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 그때에 각 사람은 땅에서 행한 대로,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불경건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다.

사랑 :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천 번이나 슬픔을 안겨드리고 배신했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 사함을 통해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예비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진 아들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고: 선행을 많이 하거나, 정직하게 살거나,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드린다고 해서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선행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핵심 구절: “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6

5.3.2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주 창조의 해답으로 신을 배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이 아니라면 누가 빅뱅을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정도로 창의적 이고 재치 있으며, 기발한 디자인과 기술적 정교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십니다.

자연 속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이 창조하신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저 압도적일 뿐입니다! 얼마 전 가게 쇼윈도에 걸린 사자 머리 포스터를 봤는데, 그 동물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야성미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필요하며, 모든 것은 재활용됩니다. 누가 감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토록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겠는가?

자연 속에서 우리는 신의 본질을 아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이 창조하신 우리에게는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신을 닮아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재활용됩니다. 모든 것은 수백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기계처럼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남자: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지성, 의지, 감정,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5.3.3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추상적인 "세상의 영"이나 비인격적인 에너지, 혹은 단순히 "자연"과는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가가기 쉽고, 우리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 하나님은 단순히 "더 높은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6. 예수는 누구인가?

6.1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기 전에도 신적인 형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온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집행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1:1-3 (HFA)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이 비유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양, 즉 온기와 빛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의 가시광선, 즉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무도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 없어 눈이 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예수님)을 통해 태양은 비로소 보이고, 알아볼 수 있으며,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6.2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성경적 근거:

구약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메시아(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분은 인류에게 구원과 죄 사함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그리스도 탄생 약 750년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4-6 (루터역):

*“그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으나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 자로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우리 불의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형벌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지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53장에서 자세히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약 2천 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4 (HFA)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영광, 곧 독생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6.3 십자가: 대속적인 희생적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줍니다. (로마서 5:21)

또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5-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 자신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5: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찢리셨고, 우리 불의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형벌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희생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4 부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1-17, 22-23, 마가복음 8:31, 누가복음 9:22)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둥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중보자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살아 계신 구원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한 왕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만약 왕이 그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잊었다면, 그 법은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업적이 바로 그 율법의 내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 율법은 서명되지 않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율법이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 그 율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서에 서명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34)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5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경험을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자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6.6 적용: 믿음을 통한 은혜

구원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9)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6.7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0:9)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25)

7.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령은 신성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이시며,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전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조력자이시며, 스승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7.1 성경적 기초: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시더라.”*
(창세기 1:2)

7.2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제사장, 재판관, 왕, 예언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통찰력을 얻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예: 다윗 왕,

모세, 이사야, 삼손, 엘리야, 엘리사).

7.3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령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1:35).

예수님의 세례 :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마태복음 3:16).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돕는 자요 가르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7.4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적이고 심오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심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인장: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30)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인봉”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에 대한 보증금이요, 그분의 소유를 온전히 구속하실 보증입니다 .” 에베소서 1:13-14 (고린도후서 1:22, 에베소서 4:30도 참조)

7.5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7.5.1 내면의 갱신과 재탄생: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 동행을 재정비할 준비가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분 안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창조하고, 강화하고, 확장시켜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7.5.2 신앙과 정체성의 확신:

로마서 8장 16절 :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민권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시고, 구원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의심을 없애 주십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사탄은 당신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7.5.3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및 리더십: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인도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대개 양심의 미묘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 갑자기

떠오르는 충동이나 번뜩이는 통찰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단순한 인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도움: 성령님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일상의 도우미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놀랍도록 안심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도록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도, 이정표, 나침반을 모두 겸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강하게 자라셨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향하든 성령님께로 향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경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허용함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 성령께서는 떠나가셔서 더 이상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 사탄은 이렇게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당신의 영혼에 다시 발판을 마련하고 당신을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싶으신가요 ?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던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항상 두 분의 조력자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다음은 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갑자기 물 위를 걷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 예수님께 오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바람에 놀라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니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취미가 아닙니다. 마치 “이제 다시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 기분이 드니, 서랍을 열고 예수님을 꺼내면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연주하고 때로는 연주하지 않을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 매일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 귀를 크게**

가지세요: 귀를 크게 가지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익숙해지세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성장하시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7.5.4 성화와 인격 변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시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묘사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성품을 **형성하고 강화시켜 주시며** , 이는 신성을 **구성합니다**.

7.5.5 봉사를 위한 힘! (위대한 비밀!)

사도행전 1:8 :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효과적인 증거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므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는 당신의 봉사를 위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5장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어 보십시오!

혹시 알아내셨나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수록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당신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사탄이 아주 빠르게 다시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일도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자도에 있어서 미지근해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15-16 >> 경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그리고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도 알아. 네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7.5.6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보십시오 .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 또는 기도와 안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오직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약:

성령은 단순히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시며, 스승이시며, 변호자이시며, 거룩함과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 안에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긴밀한 연결 ; 영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이며, 신뢰와 변화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분께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분은 당신을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잘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8. 사탄은 누구인가?

8.1 용어집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으며, 문자 그대로 “**대적자**”, “**상대방**”, 또는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악마”(*diabolos* = **비방자**)와 “사탄”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사탄(악마)은 **악의 화신**이며 , 따라서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8.2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천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빛을 나르는 자)였습니다.

8.2.1 루시퍼의 반란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총명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오만했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려 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탄, 즉 대적자로 변모시켰습니다.

8.2.2 루시퍼의 반역 이유

반란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교만, 권력,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자유에 대한 갈망,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주적 전쟁 : 루시퍼는 일부 천사들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합류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천상의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이 반란은 우주적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12절을 읽어 보십시오.

참고 :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한 강력한 천사였다는 생각은 특정 성경 구절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여러 성경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8.3 악마, 이 세상의 왕자

요한복음 22장 31절은 마귀를 “ **이 세상의 왕** ”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복음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보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간교함에는 또한 세상에 거짓 사상과 철학을 퍼뜨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이 선물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8-10 참조)

8.4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탄:

8.4.1 사탄은 왜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가?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인류를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파멸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인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죄와 자멸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유혹합니다.

B:) **망상에 사로잡힌 사탄**: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께 패배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의 영혼을 자신과 함께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8.2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려고 하는가?

A) 악마는 잔혹한 파괴자가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뱀으로 변장하여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교활한 조종자입니다.

B) 악마는 무엇이 선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진리를 상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C) 악마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기 결정이 더 낫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D) 악마는 불순종이 해방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E) 악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F:) 그는 악마와 지옥은 그저 동화일 뿐이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할 거예요.

G:) 사탄은 모든 것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H:)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하셨어! 하나님은 재미를 망치는 분이야!”

나:) 사탄은 당신에게 돈, 권력, 명예, 욕망의 충족 등을 약속합니다...

J:) 사탄은 좋은 것들을 우스꽝스럽거나 지루하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일단 자리 잡으면 불처럼 퍼져나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8.3 당신의 영적 전쟁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유혹하려는 악과의 영적 전쟁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 마귀의 간계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 에베소서 6:11-12

그러므로 사탄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3.1 어떻게 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영향력은 미묘하며, 드물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불화, 시기, 그리고 속임수를 조장하는 방식입니다.

겸손은 악마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6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겸손은 내면의 만족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첫 번째 방어책: 경계심; 사탄이 숨어 있을 만한 배후의 수단을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 보호책: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림자 없는 삶을 사십시오. 사탄이 달라붙을 틈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성령님께 더 집중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므로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보호책: 기도.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감동시키는 모든 것, 슬픔과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 놓은 후에야 잠자리에 드십시오.

네 번째 보호책: 읽다 성경 전체에 걸쳐, 특히 신약성경에, 그중에서도 네 복음서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에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 원칙 : 모든 낮 에이 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강화하고 악에 대한 당신의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보호책: 섭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을 노예로 만든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음란물을 절대 접하지 마세요. 또한, 보는 영화와 듣는 음악에도 신경 쓰세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 선택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니며 당신 안에서 자라나려는 생각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거나, 낙담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과 생각을 나누거나,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일곱 번째 보호책: 마음이 통하는 종교 공동체를 찾아 그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함께라면 사탄의 화살에 더욱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서로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숫불도 불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져가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덟 번째 보호책: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보호책: 사탄을 당신에게서 멀리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9.3.4절을 참조하십시오.

5.4 결론:

사탄은 열린 문을 필요로 합니다. 미움,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다툼. 정욕, 탐욕, 질투, 교만, 자기 영광...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문을 닫아 두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 (에베소서 4:27)

겸손을 기르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을 당신의 새로운 장식으로 삼으십시오 . 성령님께 당신의 교만을 겸손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9. 하나님과 분리됨

9.1 모든 것의 시작

에덴동산으로 돌아가 아담과 이브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저녁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 아마도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의 인류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선과 악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악은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선, 곧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성경에 남긴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동물보다 더 간교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여자에게 물었다.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예외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뱀이 반박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지.”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악은 한때 에덴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었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일깨워 유혹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향한 욕망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진실을 왜곡하고 의심을 심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될 줄 알면서도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도 뱀 (사탄)을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적어도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동의어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소외로 이어졌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고통,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아담과 이브는 낙원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고된 노동과 땀, 그리고 궁핍을 통해 스스로 음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9.2 원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성향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에게 자동으로 전해집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의 형벌(하나님과의 단절) 또한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세례: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파들이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취약성: 원죄는 우리가 본래 악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한탄했습니다(로마서 7:18-20):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죄성을 거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즐기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확증합니다. 죄를 확증함으로써 우리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행한 일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 똑같이 유죄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들은 과일을 먹자마자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이 같은 순진함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아담과 이브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탄은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중요한 사실: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이치입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면 원하는 만큼 빨리 운전할 수 있겠죠. 판사는 과속으로 기소할 수 없을 겁니다.

판사는 오직 법, 즉 규칙에 근거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해는 우리 영혼에 새겨진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 로마서 2장 14절을 읽어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

신호 위반: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판사는 당신을 고소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녁을 빗나가다 :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과녁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를 지고 있으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면 “기록”해야 하므로 “의로워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내용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12절: “*성경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

그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돌아서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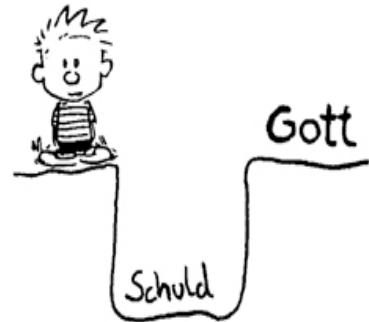
9.3 우리는 왜 끊임없이 죄를 짓는가?

9.3.1 우리의 죄성:

원죄는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성향, 즉 하나님이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심과 자기실현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내면의 충동이 생겨납니다.

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심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심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너머로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지만, 더 즐겁거나 편리하거나 유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종 더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9.3.2 보이지 않는 차원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차원은 놀랍도록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선과 악, 두 진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신과 악마로부터 .

영혼의 최종 안식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모든 인간의 영혼은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다!

사람들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신은 자동으로 악마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리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죄는 노예로 만듭니다. 죄를 지을수록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 나는 그걸 권리가 있어!
-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내 것이어야 할 것은 내가 차지하겠다!
- 나는 권력을 원한다!
- 누구도 내게 그렇게 말하게 두지 않을 거야!
- 그는 자기 잘못을 탓해야 한다!
-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기주의 : 위에 언급된 유행어들은 모두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자아는 정당성, 권력, 그리고 인정을 추구합니다.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으므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작은 악마: 그런 태도는 작은 빨간 악마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속삭임에 쉽게 현혹된다면, 우리는 파멸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9.3.3.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이지! 악마가 널 다시 원하고 있어 ! 이제부터 넌 대다수 사람들이 있는 적의 진영에 속하지 않아. 아니! 넌 이제 편을 바꿨어.

악마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겼으니! 물론 악마의 교만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악마는 더욱 필사적으로, 온갖 간교한 수법으로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한 인간으로서, 당신은 특히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9.3.4 사탄을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새롭게 회심한 당신이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성경(특히 신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중독이 너무 심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악에 대해서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으로 가서 성경이나 십자가를 손에 들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게서 떨어져라! 사탄아, 너는 내 영혼에 대한 권리가 없다! 여기서 나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귀는 사라진다. 믿는 자는 사탄을 이길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 !

10. 왜 죄를 짓는가?

본 장의 서문;

이전 장에서 저는 원죄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죄를 짓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왜 가장 끔찍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0.1 중재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랑, 그리고 빛은 순수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죄악이라는 짐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곧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중재자로서의 예수 : 인간과 신 사이의 분리는 절대적이다.

이는 우리에게 중재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 이 간극을 메워줄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십니다.

10.2 죄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 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이나 말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 목표를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절 : “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요한일서 3:4)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10.3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죄는 하나님께 너무나 무서운 것이어서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23

10.4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외면하거나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는 오직 피로만 속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오직 피, 즉 생명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흠 없는 숫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어린양의 피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젠가 특별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 예언자는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1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750년이나 앞선 예언이었습시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0.5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친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며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흠 없는 희생 제물로, 즉 속죄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죽음은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복음 = "기쁜 소식":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변환을 통해 당신은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핵심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가?

11.1 서론

오늘날 사회에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오랜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아니,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셨을 리가 없어. 동화일 뿐이야!"

제가 장담하건대, 지옥은 존재합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틀린 것이 될 것입니다 . 성경의 정확성은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예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언들은 모두 상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독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저승(최후 심판 전까지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11.2 성경에 언급된 지옥:

지옥이라는 주제와 지옥(또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누가복음 16:19-31) .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아무런 상처 없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 이 말씀들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옥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3)

“모든 것이 그분(예수)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다.”

11.3 임사체험; 사람들의 증언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지만 그 순간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들은 의료 치료 중 심장 박동을 활성화시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사후 세계에서 본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

인터넷 링크 :

링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링크는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나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1.4 지옥과 저승의 차이점

성경은 지옥(영원한 저주)과 저승(죽은 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게헨나”라고 불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 인간 영혼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저주”를 뜻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은 곧바로 영원한 저주(지옥)나 영광(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셰올”,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자들의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위로의 하데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자가 가게 된 지옥으로 가는 전실인 “고통의 하데스”가 있습니다.

11.5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묘사된 **지옥처럼** (영원히 타오르는 녹은 유향의 못; 요한계시록 19:20 // 20:10-15) 사람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내리실 수 있다고?”*

여러분은 외칠 *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답 :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기에 그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설령 사람이 자유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 하더라도 말입니다 .

에 대한 최종적인 반발의 논리적 결과이다 .

CS 루이스 (20세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과

하나님 께서 '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명심하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한 무게를 지닙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진지한 초대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성경은 하나님을 완벽한 사랑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완벽한 정의를 가진 분으로도 묘사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가학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죄의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결과(영원한 고통, 파멸 또는 정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신학적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12.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12.1 기본 사항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성경 읽기는 잠과 식사만큼이나 필수적인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합니다.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 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예언,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

12.2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믿음에 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 십계명, 사도들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빛 아래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살펴보도록 도와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축복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성경 읽기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본성, 즉 그분의 사랑, 정의, 신실함, 그리고 인내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꾸준히 성장시켜 줍니다.
- 성경에는 고통과 슬픔의 시기에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과 시편을 읽어 보세요!**
-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12.3 어디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두껍고 내용이 더 방대한 부분인 구약성경과, 더 얇은 부분인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예수 탄생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기록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젊은이인 여러분에게는 먼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매일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약성경의 첫 네 권은 네 복음서입니다.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저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의 삶을 기록하여, 예수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 복음 과 **요한** 복음 은 목격자의 기록입니다. 이 두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내내 함께했습니다. 나머지 두 저자인 **누가복음** 과 **마가복음**은 들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다섯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은 예수 승천 이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과 근동 지역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사도들(믿음의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에 가르침과 영적 성장을 위해 보낸 편지들입니다.

중요: 이 편지들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시편, 솔로몬의 잠언, 모세오경, 이사야서 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12.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에, 또는 아침저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12.5 어떤 성경 앱을 사용해야 할까요?

“YouVersion” 성경 앱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YouVersion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성경 서비스입니다.

12.5.1 YouVersion의 장점:

- 수십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성경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성경 번역본은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음성으로 성경 구절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 성경 구절 검색이 매우 효율적이고 원활합니다.
- 성경 구절을 색깔로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성경 번역본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구절들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번역본을 선택하여 동일한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절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메모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성경 읽기 계획과 성경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 매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과 지침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 친구들과 통찰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규모 성경 커뮤니티입니다. 페이스북 및 휴대폰 주소록과 연동됩니다.
- 그리고 이 앱에는 기독교 영상과 영화, 심층 주제, 묵상 자료, 성경 구절 이미지 편집기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6 적대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듯이 사탄도 존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혼은 그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당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대비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방해하거나, 예를 들어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당신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9장 2.4절 “사탄을 쫓아내라”에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 많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13. 거룩하라!

핵심 원칙: 거룩한 삶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13.1 기본 사항

1.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고 죄악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질을 주실 것입니다.

예:

짚단은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짚단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만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물과의 접촉이 끊어지고 완전히 말라야만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죄와 죄책감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감싸주십니다.

핵심 구절: 요한일서 2:15-17

“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탐하는 욕심,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도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려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짙은 항상 물에 적셔져야 합니다!

내세 :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형성하는 영적인 고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13.2 “거룩함”이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
- 예수님은 우리의 코치이자 친구가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 세속적인 것들과 의식적으로 차별화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 사랑이 없는 삶보다 낫다
- ✓ 원망 대신 화해를 추구합니다.
- ✓ 복수 대신 용서.
- ✓ 방탕함 대신 순수함.
- ✓ 속임수 대신 진실성.
- ✓ 자만심 대신 겸손함을.
- ✓ 오만함 대신 자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13-14)

핵심 구절: “ 여러분의 모든 행동, 곧 말과 행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

골로새서 3:17 (HFA)

13.3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 항상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

거룩함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헌신의 길입니다. 결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빛 가운데, 그분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또한 다음을 의미합니다:

- ✓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 ✓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 ✓ 평화를 이루다
- ✓ 사랑을 실천하기
- ✓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 ✓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
- ✓ 지혜와 인내심을 배우는 것

거룩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자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2

거룩한 사람들은 흔히 겸손하지만, 심오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명석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함은 은둔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진실함, 순결함, 헌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14.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징표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마치 달팽이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사로잡아 가십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삶을 바꾸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

성령 안에서 성장하려면 성령님을 온전히 삶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당신 안의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칙칙한 구석구석에 빛을 비출 때에만 가능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십시오 .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좋지 않다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14.1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달팽이를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움츠러들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33절에서 바울의 말씀을 읽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죄악 중 하나로 그를 자극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당신에게로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적이 기꺼이 채울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죄조차도 꾸준히 예수님께 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어!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욱 충만하실수록 사탄의 유혹에 더욱 잘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흡연이나 그와 유사한 중독과 같은 좋아하는 죄악을 끊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14.2 문을 닫아 두세요 !

악마에게 틈을 주면 성령께서 물러가시고, 사탄은 당신이 열어둔 틈으로 강력하게 침입합니다. 요점은 악마가 당신의 삶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당신 안에 발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의 빛 가운데 서며, 거룩한 삶을 살 때에만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시 한번 사실로 입증됩니다. **반쪽짜리 기독교인이라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4.3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군요, 그렇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보게 하십시오 .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이러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도록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열매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더욱 충만할수록 이러한 열매들은 당신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14.4 당신 안의 영적 성장의 징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시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집니다.

-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내면의 강렬한 열망.
- 하나님께 깊은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당신은 그들 모두를 안아줄 수 있어요!
- 동료 인간에 대한 진정하고 이타적인 사랑 - 설령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의지.
- 요한복음 4:7-8 >> **자비!**
- 죄와 성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요한복음 16:8). 이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악에서 돌아서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 당신은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악 속에서 살지 않고, 평화와 갱신을 추구합니다.
-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영감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로마서 8:14).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내면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예수님 앞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을지 여쭙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 증거할 용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으로 점점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사도행전 1:8).
-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당신 안에서 솟아납니다.
- 진실을 향한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옹호.
- 일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치유, 예언,
지식 등이 있습니다.
-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시고, 당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
당신이 많은 사랑과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5.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만약 여러분이 이 안내서를 여기까지 주의 깊게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장은 사실상 불필요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들과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적어 두겠습니다.

- 당신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파멸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친구이자 코치이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당신에게 통찰력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또 다른 조력자, 성령님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5.1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규칙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 당신은 이미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점점 더 당신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 당신 안의 이기심, 자존심,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욕구가 사그라듭니다.
- 그 결과, 여러분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겸손이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 당신은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 당신은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사랑, 연민, 용서, 수용, 친절, 온유, 인내 등이 그러합니다.
-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켜 당신의 인격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과정에 계십니다.

꼭 알아두세요 . 이런 성격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15.2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 " (WWJD) **라고 질문해 보세요**

.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결정에 도움과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여쭙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제3자와 함께 문제를 상의하고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친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라면 올바른 길을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중요한 점: 특히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 당신의 본성이 이미 신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3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과 예수님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1-5 (HFA)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아버지는 포도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다듬으신다. 너희는 이미 좋은 가지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도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5.4 기도

15.4.1 기본 사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 **성령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26-27)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삼위일체적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5.4.2 기도할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기도;** 주기도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 **예수 기도:** 개인적인 관계, 구원에 대한 감사,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 **성령께 드리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한 번의 기도 안에서도 이러한 단계들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거나(예수님 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누가복음 11:2-4 참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15.4.3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가능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하나님과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10분은 아주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당신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를 그분께 맡기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대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큰 사랑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께 항상 당신의 입에 올바른 말을 넣어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

잠자리에 들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또는 돌보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5.4.4 경청 기도

많은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경청 기도를 실천합니다. “경청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 감사,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인상, 내면의 이미지, 성경 구절 또는 생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개 침묵과 칭찬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인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5. 4. 5 하나님 앞에서의 명상 시간:

안개가 자욱하고 흐린 11월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보세요.

바깥 세상은 온통 회색빛뿐이네요. 사람들은 우울함에 잠겨 있어요...

하지만 이제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태양은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태양을 보려면 알프스 산맥으로 가야 해요. 아주 높은 곳, 구름 위 어딘가로요. 자, 이제 보이시죠! 당신은 이미 눈부신 태양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을 내어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경청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닥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따뜻함이 당신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속 레스토랑 테라스의 안락의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세요! 그분께서 사랑과 자비로 당신을 비추십니다 .

그분의 빛을 보십시오! 그분의 무한한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분의 빛으로 찬미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감싸이십시오. 그것은 신성한 임재로 향하는 내면의 문입니다.

이 신성한 빛이 당신을 채웁니다.

마치 모세가 율법 돌판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35절을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하나 되는 이러한 **묵상 의 시간들은 언제나 제게 매우 소중합니다.**

15.5 사랑

사랑은 모든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의 근본 원리입니다. 저는 19장 전체를 사랑에 바쳤습니다.

15.6 용서

용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셨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22)

아니오, 그는 말합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입니다!”*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14-15 (HFA)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마음이 완악한 채무자의 비유를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21-36

16.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16.1 기본 사항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6.2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믿음은 새로 배운 기술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적용하기 :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성령님)을 듣는 능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예시 : 외국어와 같아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잘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하시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

그들이 당신이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16.3 믿음은 신뢰를 의미한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라고 말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요, 왜 믿어야 하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고,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수기 23:19 및 시편 89:34)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4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진정한 친척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35)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 지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15) 그리고 “음행을 삼가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신약성경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생각과 인격의 변화를 간구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굳건히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16.5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일하고 살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차를 사야 할지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잘못된 결정을 막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6-7 참조)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16).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어, 그 뜻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17. 사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여러모로 인간 존재의 핵심 요소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 삶의 모든 것은 단 하나,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랑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및 호르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가 친밀감, 신뢰, 애착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기쁨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대개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고대에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연민, 헌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중받고 싶어 하죠.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깊은 우정, 부모의 사랑, 동물에 대한 애정, 어떤 활동에 대한 열정, 이상이나 생각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사랑을 그토록 강력한 삶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합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표현하며, 분리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면,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을 일으켜 세워 줍니다.

17.1 인간, 관계적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와 대화를 갈망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곁에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혼잣말을 합니다!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기억하시나요 ?

그는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무인도에 고립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농구공에 얼굴을 그려 친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월슨”을 잃어버리자 그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

만약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한 척 놀랜드가 신앙인이었다면, 무인도에서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동반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와 사랑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이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에서 관계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2 사랑의 측면

이 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황금률: 황금률은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필수 조건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이웃 사랑이란 출신, 종교,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지침: 성경 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

17.3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에로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아(Philia) : 그리스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친밀한 우정이나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아가페 : 그리스어에서 세 번째 사랑의 형태는 "아가페"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신성한 사랑, 자비, 자선, 그리고 수용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온전하고 의도적인 기쁨입니다. 이는 신실함, 헌신, 그리고 의식적인 의지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높은 도덕적

본성과 강한 성격으로 다른 유형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 사랑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0:27)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4

-5

우리는 친구든 원수든 가리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확고한 의지의 행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7.3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여기 당신을 위한 사랑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희망”이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Hfa)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고집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4-5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1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 요한일서 4:11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한 하나로 묶어 줍니다
.” (골로새서 3:14)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7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요한일서 4:8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았으니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서로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19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의 온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요한이서 1장 6절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 에베소서 4:2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8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복음 15
장 12절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경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앞서십시오.” 로마서 11:10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요한일서 4:12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로마서 13:8

“주님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12

“증오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잠언 10:12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르쿠스 12:30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31)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6-7)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10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10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들이 수십 개 더 있는데, 그것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18.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모든 음성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18.1 주제 소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로 선택부터 배우자 선택, 그리고 학교, 대학, 직장에 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예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목소리와 인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올바른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축복이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18.2 개인적인 경험

저는 인생에서 25년 동안 후회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어렸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슬픔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쨌든 돌이켜보면,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을 제외하고는 제가 하는 일이 거의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제 길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18.3 당신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면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 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자, 이제 물으십시오.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고, 어느 쪽이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음성입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1: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우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8-9)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위를 배회하며 여러분 중 한 사람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의 공격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알아두면 좋아요 2: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 목소리가 들려 어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는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의 문이 아직 살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많은 음성이 들려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악마를 당신에게서 쫓아내세요. 악마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면 악마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뿌리 뽑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께서 당신을 완전히 감싸주신다면, 당신은 좋은 음성과 나쁜 음성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대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삶 어딘가에 침투하여 방해 공작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죄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악을 제거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사십시오 ! 그러면 더 이상
사탄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가슴속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18.4 팁과 요령

가슴 속에서 들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 합니다.**

-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훈계하거나 바로잡으실 때조차도 사랑과 진리, 그리고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33)
-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통화 내용이 힘들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가?
-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사랑이 없거나, 조종하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 살펴보십시오 : 그 목소리가 내게 전하려는 내용이 하나님의 본성(사랑, 정의, 진리)과 일치하는가?
- 나와 타인에게 선한 영향 을 미치는가 ?
- 헌신과 신뢰 ,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 예: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를 믿으세요.”*
- 사탄의 목소리(혹은 메시지)는 종종 집요하고 교활하며, 우리가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강요합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내용은 불친절하거나 때로는 비난조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설득하려 하는 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너는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너는 이미 충분히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당해야 해...
- 너는 책임을 져야 해!! -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훈계하시면서도 온유하십니다.
- **우리는 종종 그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 믿음, 용기, 기쁨, 진실과 같은 선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신성한 기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른 신자들과 상의하십시오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잠언 11:14
- **결정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 어떤 일이든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의, 아니 거의 절대 당신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목소리가 당신에게 압박을 준다면(“지금 당장 해야 해...”), 그것은 대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 **실천적인 방법:** 예수님과 매일 대화(묵상)하십시오. 어떤 길(또는 어떤 음성)이 옳은지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18.5 불순종

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아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만, 여전히 그분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불순종은 그리 나쁘지 않겠지!” 사탄은 우리를 조종할 방법을 아주 빠르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경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명확한 진리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19. 어쨌든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건가요?

19.1 성경적 기초

당신은 어쩌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혹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 학파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릅니다.

신약성경에는 신자들에게 굳건한 기초를 제공하는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자신의 양을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보증으로 이해합니다. 진정한 회개(회심)와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불가분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 다양한 신학적 관점:

칼뱅주의/개혁주의: 진정으로 회심하면 언제나 구원받는다. 그 보장은 자신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관점:

구원은 실재하지만, 사람은 의식적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배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정교회의 관점:

세례와 믿음은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대한 죄는 이 은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화해와 새로운 삶의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의미:

진정한 제자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증”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로 이해됩니다.

결론: 당신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요?

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주장은 현대인의 귀에는 혼란스럽거나, 놀랍거나,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시며, 유일무이 한 길이입니다 .

명성이나 업적, 특별한 지식, 아무리 마음씨가 착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불의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형벌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 (이사야 53:5)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분입니다(베드로전서 2:4).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요한복음 3:13).

신성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히브리서 4:15).

예수님은 요한복음 14:6뿐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자신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21-27에서는 자신을 믿음의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6:63).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4-15).

- 그분은 양들을 위한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7)
- 그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요한복음 6:35)
-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25)

다른 누구도 이러한 칭호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앞에서 연설할 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으며, 하늘 아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

요한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용서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당신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12)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68-69)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종교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며, 그들의 사상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21.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21.1 주제 소개

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이 왜 고통을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은 신학과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경 속 율부터 현대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아 온 질문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추론만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유 의지 :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책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나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은 오직 자유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의 남용 : 고통은 종종 사람들이 이 자유를 남용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눈멀게 하고 악행(전쟁, 폭력, 탐욕, 증오, 착취)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적이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악의 영향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나라에 고통, 역경, 굶주림, 전쟁, 궁핍을 가져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신은 개입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는가? 마치 권투 경기에서 두 선수가 특정 한계를 넘어섰을 때 심판이 개입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이유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8-9** (HFA)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토기장이의 이미지를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따르면)

로마서 9장 20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21.2 고통은 인격을 형성한다:

고통은 단순히 형벌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 용기, 연민, 수용, 용서와 같은 미덕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고통 속에서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서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발 피부가 아주 단단해져서 마치 신발을 신은 것처럼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21.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고난:

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은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준비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25절: *“누구든지 내게 속하려거든 자기를 가운데 두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고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얻을 것이다.

21. 3. 1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극적인 비유를 통해 다음을 설명하십니다.

자기 부인 :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망, 안전,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

고난을 감수할 의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거부, 조롱, 심지어 박해까지 견뎌야 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꾸준한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은 일상생활에 덧붙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삶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유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33)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쉽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상에 필요한 신성한 힘을 주십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인류는 타락 이후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고통을 직접 감내하심으로써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즉 ,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가장 큰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목표 : 요한계시록 21장: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없애실 것이지만, 그 전까지 고통은 더 크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21. 4. 신은 비인간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

-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
-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 여성과 소녀들을 학대하는 남성들.

이러한 추론은 매우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이 넘치고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죽는 것은 육체이니깐요.

저는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의 영혼은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혼은 곧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사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서 지낼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 당신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고 있거나, 영광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택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속담: 뿌린 대로 거둔다.

2 1.5. 구약성경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복한 땅의 모든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사실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은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끔찍합니다! **“이건 명백한 집단 학살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의 만행과 같습니다!

신앙을 새로 접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읽고 혐오감을 느껴 성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신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수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올바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극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이 민족들은 죄로 인해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신명기 9:4-5; 18:9-12).

이들 민족 사이에서 흔히 자행되던 잔혹 행위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희생, 종교적 매춘, 우상 숭배, 마술 의식 등 수많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그들의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다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두려움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7장 1-2절에 명시된 대로) 완전히 섬멸하는 대신, 노예로 삼거나 복종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 등 몇몇 민족을 살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명백히 질책하셨습니다. (사사기 2:1-3)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이 민족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대로 그들이 너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우상으로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옳았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 명령이 끔찍한 일로 보이고,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실행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말입니다.

21.6. 개인적인 경험

저는 살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와 친척들을 여러 명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열한 살 소녀도 있었는데,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 그들이 죽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기도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 내 기도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던 걸까?
-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걸까?
- 그의 약속은 거짓인가요?
- 신은 비인간적인 존재인가?
-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무슨 목적을 이루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응답을 주시도록 하는 마법 같은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진흙 덩어리 같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내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분의 뜻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택하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느니라.”*

22. 하나님의 축복의 빛 속에서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방법:

22.1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까?

-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 하지만 당신은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주저하는군요?
- 조언을 구하시는 건가요?
-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려 할 때, 당신은 저항합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행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과 행복하려는 마음 사이의 갈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다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행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명 에 미치지 못하는 삶 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항상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왜 그의 약속이 그토록 멀게 느껴지는지, 왜 그의 목소리가 그토록 불분명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행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고,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받는 삶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심이 우리 인간 본성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 싸우도록, 자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교육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은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이 필요하고, 만약을 대비해 플랜 B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진정한 힘은 행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통제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안락함과 안전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것은 두려움, 걱정, 좌절로 이어집니다. 통제하려 애쓸수록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역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정감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도 씨름합니다.

사람들은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 실패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2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배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지만, 두려움은 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자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때 갑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고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그분의 모든 길, 심지어 어렵게 보이는 길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28) “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경험을 통해, 혹은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신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던 것처럼 자신도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원수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 대해 그렇게 믿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논리, 능력,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초자연적인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당신을 억압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신뢰를 선택할 때, 저항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미묘한 방식으로 그분을 거스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려 애쓰시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그분께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항상 공개적인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저항이 훨씬 더 미묘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항은 변명, 지연,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습니다! 다만 그분의 메시지는 은밀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속삭인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생각으로 치부한다.

그가 진실을 밝히려 해도 그들은 반박한다. 그가 행동을 촉구해도 그들은 주저한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극적인 표적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침묵 속에서, 마음의 조용한 확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또 다른 방법은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저합니다. 그들은 확증을 기다리며, 표적을 찾고,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미루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성령님과 협상하려 함으로써 성령님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대신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저런 식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께 순종합니다. 하지만 저 점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분적인 행복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행복하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영적 긴장 상태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또한 교묘한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더 깊은 기도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과 소셜 미디어 로 시간을 채웁니다 .

적은 당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신을 파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귀 기울일 수 없고, 당신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반응할 수 없다면 ,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버리라고 하신 것을 고집 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행복하기를 거부했기에 슬픈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통제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저하거나, 그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그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저항할수록 그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항한다면, 성령의 음성은 결국 당신에게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저항으로 인해 서서히 귀가 멍멍해지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조화를 이루면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불확실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명확함과 평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망설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깊은 확신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고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신성한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령을 따르는 대신 그분을 거스르도록 마음이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혼에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입니다.

이 평화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혼란, 두려움, 또는 끊임없는 의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확증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에 심어주신 것과 일치하는 상황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또한 문을 열거나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기회가 저절로 생기거나 문이 예상치 못하게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장애물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또한 깊은 절박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든, 이러한 절박함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귀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기 위해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분별력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극적인 사건만을 기다린다면, 당신을 인도해 온 부드러운 속삭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아, 즉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혜, 계획, 힘에 의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신에게 인도를 구하지만, 오직 자신의 욕망에 부합할 때만 구합니다.

자기 통제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기 통제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패만 피하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통제가 순종을 대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이유입니다!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이 성령님께 대한 의존을 대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방식에 만족하게 됩니다. 믿음보다 논리를, 소명보다 안락함을, 순종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삶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 하나님의 길이 불분명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통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행복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무언가로 들어갑니다.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스트레스에서 평화로, 고난에서 목적의식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행복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항을 멈추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까요? 통제하려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 행복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신성한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유부단함, 두려움, 불확실함의 짐이 당신에게서 사라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지라도, 누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일을 진행하거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싸움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더 나은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당신 안에 새로운 소망을 일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분의 임재와 음성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속화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 관계, 그리고 돌파구들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조화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 업적, 또는 자아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그분의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헌신은 당신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을 벗겨냅니다. 모든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헌신은 불안감을 자신감, 용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헌신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따르겠다는 헌신입니다. 중요한 결정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말입니다.

22.3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매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분과 조화롭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오히려 조용하고 지속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해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지혜,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충동에 따라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 신성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동합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 그가 내딛었던 모든 발걸음,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전적인 의존,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의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 속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신성한 섭리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 더욱 순종할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이 경고하실 때, 영감을 주실 때, 위대하고 중요한 일로 인도하실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논리적으로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특히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십시오. 얼마나

믿고 온전히 맡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인도하심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고 성령께서 당신 삶의 모든 면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행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획과 기대,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안락함보다 신뢰를, 편안함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착해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꺼이 놓아버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비록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더라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순종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언제나 현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표로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불쾌한 일을 시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계획이 더 낫다는 사실, 그분의 길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항을 멈추고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초자연적인 평화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막혀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닫혀 있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은 돌파구로 이어집니다.

이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려놓음의 힘, 즉 내려놓음이 어떻게 돌파구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기대, 그리고 방식대로 일하는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는 손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옛 짐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새로운 축복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돌파구는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과 미래, 그리고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임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 평생을 기다려온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제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이삭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운명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애쓰는 것을 멈추고 순종하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려놓는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직장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주던 관계가 해결되거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당신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항복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조화롭게 걷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애쓰고, 강요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2.4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나쁘고 힘들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삶의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일들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신뢰가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상황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질병, 고통, 사고, 좌절 등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성경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신성한 법칙을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기울어진 선에도 똑바로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그분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실된 삶을 살아갈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의 삶 곳곳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23. 결론

오타를 찾으려고 이 신앙 안내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 모든 내용을 제가 글로 썼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아니, 사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제 친구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그 역시 그 후로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